

민주, 내일 ‘통합 선대위’ 발족…본격 대선 모드 전환

중도보수 외연 확장 ‘현장 밀착형’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영입
김경수 전 지사 주요 직책 맡을듯
李, 최고위서 “은 국민 후보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30일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능력 중심의 ‘통합형 선거대책 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 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국민 보시기에 괜찮다는 (분이라는) 판단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현장 속에서, 현장에 밀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캠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는 주요 직책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가운데)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장관 이외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복수의 외부인사 추가 영입도 검토 중이며 선대위 출범 후 순차적으로 인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눈을 돌려 선대위 출범과 발맞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국

민 대통합’을 여러차례 강조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도 보수 인사 영입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넓게, 친소관계 구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통합과 ‘원탁’에 방점을 찍고,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상임 선

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전 후보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 지역이든 중앙선대위든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비이

재명)계의 박용진 전 의원과 당의 중진 의원 등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의 실무 조직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하되, 지역 투표를 사수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의원을 대선 기간 지역구로 투입해 대선 투표를 끌어 올리기에 매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잠깐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후보가 제시한 원칙은 첫째 당을 중심으로 한다, 둘째는 효율적으로 한다, 셋째는 최소한의 중앙 기능을 뺀 전원은 지역에 올인한다는 것”이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적 선대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세상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라리 찢어지지 않도록 통합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첫 일정부터 중도보수 확장 ‘통합 행보’

이승만·박정희·박태준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 부터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의 경우, 그간 민주당에서는 항상 논쟁거리가 돼 왔던 이슈이지만, 첫날부터 참배를 하면서 과감한 중도·보수 확장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대행, 5월초 사퇴후 대선출마 유력

“1~3일 결정”…총리실 참모도 사표
측근 중심 ‘소수 정예’ 캠프 가동할 듯
민주 “내란공범,尹보다 더한 주술과”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힌 뒤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도·서울대 선배로서 막역하게 지내온 정 회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애초 국무위원 간담회나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사퇴·출마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내각에 빈틈 없는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만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결과에 따라 한 대행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부직 참모들은 이달 내 사퇴해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총리실 운영팀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달 3일, 4일이다.

같은 달 3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인 만큼, 한 대행이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1일이나 2일에 공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 대행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공범이며, 윤석열·김건희보다 더한 주술 후보”라며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마을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공범 한덕수만 기다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봉숭아학당에 따로 없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시즌2’를 열겠다니 이렇게 뻔뻔한 정치집단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낙연 “가짜 넘어 진짜 민주당 재건하겠다”

대선 출마 공식화

이낙연(사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8일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품격, 미래 비전, 위기 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 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어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생각보다 훨씬 싱겁게 끝났다”며 “정치적 자산을 쌓아보겠다며 출마한 두 후보는 들러리조차 되지 못한 채 소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 “90%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은 민주당이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 후보의 득표는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일방적 추종’이자 전체주의적 광종”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 청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석열이 파면으로 청산됐으니 이제 이재명 후보 차례다. 이는 상식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자 정상국가로 가는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의 가짜 민주당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진짜 민주당, 당면한 위기 극복과 협치와 타협의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화합의 새 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록 지사 “韓 대선 출마는 제2의 내란”

“과도정부 역할에 충실”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28일 “내란 동조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에 나선다면 내란 종식은 요원해지고, 출마선언은 제2의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총리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총체적 국정난맥을 책임질 2인자였음에도 불법 계엄은 제대로 막지도



않았고, 그 이후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내란대행’을 자임하듯 행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내란 혐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것이며 내란 동조자가 아닌 내란 주도자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

지는 자세는 털끝만큼도 없고, 대선 정국 심판으로서 국정을 공정 수행하겠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데다 국회·현장에 맞서는 반헌법적 태도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법치는 실종됐고, 관료생활 중 한때 호남 출신임을 부정했다는 일화가 있는 기회주의자로서 입신 영달을 위해 국익을 팔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뒤 분간도 못하면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가서 찾아야 하느냐”며 “한 총리는 이제라도 무망한 대권놀음에서 벗어나 과도정부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엄중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